

## 제199회 중앙종회 임시회 인사말

중앙종회 의원 여러분, 모두 청안하십니까?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도 수행과 전법에 진력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9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입법과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마지막까지 다하겠다는 귀중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큰 뜻일수록 절차를 잘 지켜 바르게 처리해 달라는 원로스님들의 당부를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받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시 모여 종단 발전의 신심과 원력을 더욱 굳게 세우고자 하는 의지는 종도의 뜻을 수렴하고 실현하겠다는 올곧은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집행부 역시 공심을 가다듬고 불교 중흥의 다짐으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루어질 종헌 개정안들은 모두 시대적 변화가 있어 꼭 개정이 필요한 것이거나 종도들이 종단 운영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난 종회 시에 만장일치라는 의사를 확인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 사회는 무척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이어 젊은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유독 많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는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도 있어 그 아픔이 더합니다. 조직과 사회,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무척 중요합니다. 한국 불교가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들과 늘 함께 하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5대 중앙종회 의정을 마무리 하시는 의원 스님들의 공덕과 덕화를 함께하며, 여러분의 행로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8(2014)년 8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